

화보 / 화이트데이(白日)효잔치 행사

4월 9일은 닭고기 먹는 날



화이트데이 (白日) 닭고기 효 잔치
 매년 99일째 4월9일은 백색 건강육 닭고기로 백수 기원하는 날
 주최: 농협중앙회·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한국치킨의식산업협회 후원



종묘공원 내 국악정 앞에서 노인들의 효와 사랑의 3白실천으로 '백일(白日)날, 백숙(白熟)먹고, 백수(白壽)건강'을 바라는 의미에서 '화이트데이(白日)닭고기 효잔치'가 개최되었다. 본회 최준구 회장(좌부터 세번째)을 비롯한 관련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지난 6일 종묘공원에서 본회, 농협중앙회, 한국계육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치킨의식산업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주최하고 농림부가 후원한 '화이트데이(白日)효잔치' 행사가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들에게 백숙 나눠주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예로부터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는 닭고기는 백수(白壽-99세)의 의미가 있는 1년 중 99일째 되는 날인 매년 4월 9일에 백색육인 닭고기를 백숙(白熟)으로 먹고 백수(白壽)를 누리자는 의미에서 2005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종묘공원 내 국악정 앞에서 신나는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1,000여개의 백색란과 황색란을 이용해 '白日'이라는 문구로 만든 에그보드 제막식으로 '화이트데이' 선포식을 가졌다.

또한 삼계탕 2,000인분과 후라이드 치킨, 삶은 백색란, 흰우유, 백반을 대접하여 노인들의 백수를 기원했다.



◀ 1,000여개의 갈색란과 백색란으로 '白日'이라는 문구를 만든 에그보드 제막식으로 '화이트데이' 선포식을 가졌다.



▲ '저지방 고단백 백색 건강육 닭고기로 백수건강'을 바라는 의미에서 노인들에게 백숙을 배식을 하고 있다.



▲배식을 하고있는 본회 최준구 회장



▲종묘공원에서 행사에 제공된 백숙을 노인분들이 맛있게 시식하고 있다.

▼노인들의 흥을 돋는 풍물패 공연장면



▼화이트데이 행사를 마친 후 단체관계자들이 삼계탕을 먹으면서 행사의 뜻을 더했다.

